

海州崔氏佐郎公後孫派譜를 編纂하며서

예로부터 우리나라에는 祖上을 섬기고 同姓同本의 一家끼리의 모임을 가져 宗親間에 和洽과 親睦을 圖謀하는 것을 美德으로 하여왔던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이 있음은

오랜 세월을 통하여 先祖님들께서 쌓으신 어진 德과 빛나는 功蹟의 所産임을 우리는 다같이 알아야 할 것이니 우리 門中은 멀리 高麗時代 學問의 權威者이시고 名將이신 大寧人 諱 溫 始祖의 遺德으로 連綿하여 내려왔고 오늘의 繁行을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는 일찌기 어른들로부터 우리의 祖

가 如何한 사람이었는지 如何한 일을 하였는지 어떤 어른께서 어떻게 勸導하셨는지는 詳細히 알지 못하고 지내는 것이 事實이며 우리 世代들은 歷史에는 正統하여 역사상 偉人들에 대하여는 잘 알면서

도 우리의 家系나 祖上님들이 이루어 놓으신 事蹟들에 대하여는 疎忽하게 생각해 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祖上님들을 如何하였던 것이 現實입니다. 더우기 族譜라던가 先祖에 관한 말을 하거나

이는 封建的이고 保守的이며 古의 是는 生가인 것으로만 認識하여 온 것 또한 事實이지요. 그러나 最近에 와서 世界 여러 나라에서도 根本를 중히 여기게 되면서 뿌리를 찾는 등 譜

學에 대한 새로운 認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이제 자랑스럽게도 우리의 貴重한

海州崔氏大同譜序

余讀高麗史崔文憲公之導率後進至矣其後世有名德海州之崔蔚然望於國中蓋不惟淵源有自嗣承皆漸漬先懿其得於天清明敦厚之氣實傳衍以其類也崔氏有譜久矣己未秋崔君潤鉉承龍又大譜其同姓而使族人庠善承祖來徵序於余余夙慕文憲而歎崔氏之多賢也乃諾以序而留崔氏之來者與語得其先世事蹟益詳又聞海州山川明麗而文憲書院又當水石奇勝處石皆白色如玉每秋氣登清洞壑皆光崔氏之於居其鄉者數千家其居之久近者八九歲矣或居於海之傍邑或居遠於海而小港曲灣大山長谷之間聚族而居或百

海州崔氏佐郎公派譜

始祖

崔温 丑 邑

海州大寧郡人 歷羅至麗世以 文行稱著公殖 財甚饒豐俗稱 長者豪制卿并 牧使金興祖抑 定鄉吏尋免之

二世

子冲 亨

字浩然號星齋 一云月園 宋太宗雍熙三年 高麗 成宗丙戌生景德 二年 穆宗乙巳擢甲科 第一官推忠贊 道佐理協謀同 德允理弘文懿 儒保定綏靜康 濟功臣開府儀 同三司三重 大 匡太師中書令 判吏部事監修 國史上柱國熙 寧元年 文宗戊申九月十

三世

子惟善 齊 烈

字樂夫號松灘 天聖八年 顯宗庚午擢乙科 第一官推忠贊 化康靜綏濟功 臣開府儀同三 司三重大臣守 太師中書令判 吏部事監修國 史上柱國熙寧 八年 文宗乙卯正月九 日壬寅卒歷事 四朝立朝四十 六年謚文和公 配享 文宗廟庭○麗史 云公繼世儒宗

四世

子思齊 齊 烈

靖宗乙丑生至和 元年 文宗甲午擢丙科 第一官守司空 中書侍郎判吏 部事上柱國元 祐元年 宣宗辛未八月丁 卯卒立朝三十 八年謚良平公 麗史云公以文 行名世

五世

子淪 牛

元豐七年 宣宗甲子擢丙科 官榮祿大夫禮 部尚書翰林學 士

六世

子允儀 若 斗

崇寧元年 青宗壬午生文科 官門下侍郎平 章事判吏部事 毅宗壬午卒壽六 十一謚英烈公 配享 毅宗廟庭○麗史 云公論事明白 慷慨典銓選任 用賢能再掌貢 舉時稱得人博 學能文章嘗奉 詔選古今詩定 禮五十卷行于 世

海州崔氏左郎公派譜